스리랑카 노동자들의 행복한 하루

광주 무각사서 고국 스님 초청 대법회
전국 400명 참석 "佛心 위로 힘 솟아요"

4일 오전 전국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로 모여들었다. 이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 스리랑카에서도 그 명성이 알려진 붓다락끼따 큰 스님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무각사 대웅전 앞. 광주·전남은 물론 부산·대구·인천·군산 등에서 힘겹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400여명은 삼삼오오 모여앉아 서로의 소식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소란하던 분위기는 붓다락끼따 스님이 대웅전으로 입장하면서 일순간 조용해졌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대웅전 입구 양쪽으로 길게 줄지어 이역만리 고국에서 자신들을 위해 찾아온 선승에게 고개를 숙였다. 붓다락끼따 스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자 몇몇 이주노동자들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는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붓다락끼따 스님은 스리랑카 내 가장 큰 종파 아시기리야종의 종정으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일 동료 3명과 함께 인천에서 광주까지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둔(Sadun·28)씨는 "붓다락끼따 스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한국까지 찾아준 데 감사함을 느낀다"며 "고향생각이 나서 힘들었는데 힘이 솟는다"고 미소를 지었다.

붓다락끼따 스님이 대웅전에 들어가 자리를 잡자, 스님의 뒤를 따라 대웅전으로 향한 이주노동자들도 다소곳이 앉아 법회를 경청했다. 붓다락끼따 스님은 법회에서 "한국이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마라"며 "같은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할 것 없다"고 말했다. 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좋은 일을 하면 자신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으면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회가 진행된 2시간30분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붓다락끼따 스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법회가 끝난 뒤 무각사 주지인 청학 스님의 인사가 이어지고 불자 20여명으로 구성된 무각사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자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이날 법회를 마련해 준 데 화답했다.

청학 스님은 이들에게 "법회가 타국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법회가 끝난 뒤 무각사 옆에 위치한 5·18 기념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가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날 오후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앞에서 상무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와 상무지구 주민들이 광주시의 '포항공대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무 전지역 보상대책 세우라"

소각장 환경영향 결정고시 주민·광주시 갈등 증폭

상무소각장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둘러싼 상무지구 주민과 광주시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상무지구 전역을 영향지역으로 한 용역팀 최종보고결과를 광주시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용역팀에 상무소각장에 의한 인과관계 분석이 미흡하다며 수정·보완을 공식요청했기 때문이다.

상무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소각장 앞에서 주민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광주시는 포항공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해 상무지구 전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최근 이번 용역을 맡은 포항공대 장윤석 연구팀에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의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 등을 보완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항목별 분석 내용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 발췌해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완료되면, 영향권 설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최종결과대로 영향권을 설정할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대책위는 지난해 포항공대 환경대기분야 장윤석 교수팀에게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를 의뢰, 지난달 "소각장 반경 800m~1.3㎞ 지점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상무지구 아파트 전지역(1.3㎞)을 동일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최종결과보고서를 받았으나 그 수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40대 직장인들 교육비에 허리 휜다

연말정산 내역 분석
30대는 의료비 많아

우리나라에서 40대 직장인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고, 30대 직장인들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토대로 소득에서 특별공제되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의 경우 전체 직장인 797만7695명(과세미달자 제외) 가운데 31%(247만5198명)가 공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교육비 공제혜택자는 40대가 절반이 넘는 55.4%(209만781명 중 115만8731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32.8%, 30대 30.2%, 20대는 7.2%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이 적용되는 보험료 공제의 경우 직장인 76.5%가 공제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는 직장인의 4분의 1인 25.2%가 공제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령별 공제율은 30대가 29.9%로 가장 높았고, 40대 27.7%, 50대 24.1%, 20대 17.7%, 60대 이상 14.8%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금품·인사 비리 연루 서울 초등교장
100여명 파면·해임 파장 클 듯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원 넘게 받은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며, 기소대상자는 30~40명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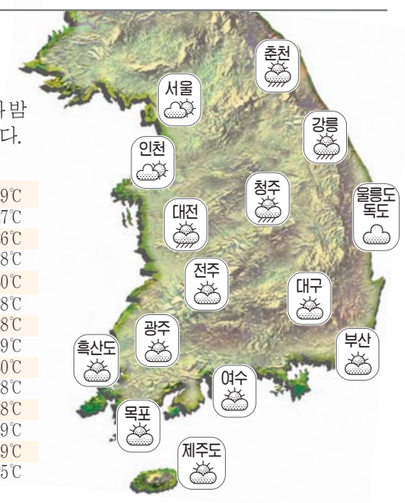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3분 해짐 19시 50분 달뜸 --시 --분 달짐 13시 20분

구름 사이로 자외선

구름이 많겠고, 오후 늦게나 밤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4/29℃
목 포	구름많음	22/27℃
여 수	구름많음	21/26℃
완 도	구름많음	22/28℃
구 례	구름많음	23/30℃
해 남	구름많음	22/28℃
장 흥	구름많음	22/28℃
고 흥	구름많음	21/29℃
순 천	구름많음	23/30℃
영 광	구름많음	23/28℃
진 도	구름많음	22/28℃
전 주	구름많음	23/29℃
남 원	구름많음	22/29℃
흑산도	구름많음	20/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7:29 20:19	00:31 13:06
여수	01:53 15:16	08:44 21: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 씨						
최저/최고	22/31	22/30	22/30	22/29	23/27	23/28

'불갑산 민간인 희생' 유족 55억 소송

광주지법에 국가 상대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4일 불갑산민간인희생사건유족회에 따르면 유족회 회원 11명은 지난달 28일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군인들은 빨치산이나 인민군들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빨치산 등에게 피해를 입은 양민들을 빨치산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집단 총살해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희생자에 대해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특검

곽동효씨 등 거론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3~9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고법·지법부장 출신 변호사 중 후보를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인 만큼 검사 출신은 배제되고 판사 출신이 특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3기에서는 곽동효(64) 전 특허법원장, 권남혁(61) 전 부산고법원장, 조용무(68) 전 대전지법원장이 후보로 꼽히며, 4기는 김시수(68)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장우(61)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5기는 오세빈(60) 전 서울고법원장이 거론된다.

/연합뉴스